4. 우리나라에서 도학을 실행하지 못함을 논함

손님 우리나라에서도 왕도로 세상을 다스린 분이 있었습니까?

주인 문헌이 부족하여 고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생각해 보면 기자(箕子)•가 우리나라에서 임금이 되었을 때의 정전제(井田制)•와 여덟 조목의 가르침•은 반드시 순수하게 왕도(王道)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삼국이 정립(鼎立)하였다가 고려가 통일을 하였는데, 그 일을 살펴보면 오로지 지략과 힘으로 서로 이기려고만 했으니, 누가 도학을 숭상할 만하다고 알았겠습니까? 나라의 임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또한 참된 앎과 실천을 가지고 선정(先正)•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또 불교에 잘못 빠져 화(禍)를 두려워하고 복을 가까이 해서, 도도한 천년 세월 동안 아무도 뛰어난 이가 없었습니다. 고려 말기에 정몽주(鄭夢周)•가 조금 유학자의 기상은 있었지만 그 역시 도학을 성취할 수 없었고, 그 행동의 흔적으로 보면 충신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손님 (발끈 성을 내면서) 그대는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의 진유(眞儒)도 없었다고 하니, 무슨 말이 그리 지나치게 고상합니까?

주인 (웃으면서) 그대가 나에게 물으니, 내가 감히 바른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 어찌 지나치게 고상한 담론을 즐겨하겠습니까? 이른바 진유(眞儒)라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실천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나서는 전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그를 진유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기자가 고조선의 오랑캐 풍속을 바꾼 이후에 다시는 본받을 만한 좋은 정치가 없었으니, 이는 벼슬길에 나아간 사람 가운데 도학을 실천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책 가운데서 의리(義理)•에 깊이 밝은 것을 아직 못 보았으니, 이는 벼슬길에서 물러난 사람 가운데서 가르침을 전한

- 기자(箕子) : 상(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숙부로 주왕의 폭정에 대해 간언을 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을 하여 유폐되었다고 함. 상나라가 망하자 조선에 와서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설이 있음.
- 정전제(井田制) : 하 · 은 · 주 삼대에 걸쳐서 시행되었다는 토지제도로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토지를 나누어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하는 제도로 『맹자』가 그 시행을 주장하였다.
- 여덟 조목의 가르침 : 고조선의 팔조법금(八條法禁) 또는 금법팔조(禁法八條)를 말하며 세 가지가 전해온다.
- 선정(先正) : 선대(先代)의 어진 이 또는 어진 신하를 가리키는 말.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말을 함부로 하여 백대의 사람들을 속이겠습니까?

- 정몽주(鄭夢周) : 고려 말기 문신 겸 학자로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다가 죽음으로써 충신의 대명사가 됨.
- 의리(義理) :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리. 대체로 윤리와 도덕에 관련된 도리이다.

독자들은 이 편에서 말한 손님처럼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의 진유(眞儒)도 없었다."라는 율곡의 말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은근히 화가 날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기자조선(箕子朝鮮)을 당연시하여 우리가 오랑캐의 풍속을 면한 것을 기자의 은덕으로 알았다는 데서는 크게 마음 상했을지도 모르겠다.

사실 기원전 1100년경 은(상)나라가 망하자 기자가 조선으로 갔다는 기록은 한나라 이전의 춘추전국시대의 문헌 가령 『논어』나 제자백가의 기록에는 없다. 다만 이 기록에는 기자의 존재자체만 소개될 뿐이다.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는 '기자동래설'이 처음 보이는 문헌은 전한시기에 편찬한 『상서대전(尙書大全)』이니, 한나라 이후에야 기자조선의 역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후대의 중국인들이 중화사상에 입각하여 첨가한 기록으로 보기도 한다. 곧 한나라가 동북방지역의 군현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한나라 판 동북공정'이라는 설이 그것이다. 또 기자가 지금의 평양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의 중국 내의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점은 우리 상고사 특히 고조선 및 한사군과 관련된 문제로 매우 중요한 역사의 쟁점이어서 지금도 학계에서 확정된 정설이 없고 논쟁 중에 있다.

아무튼 율곡의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심정

은 오늘날 민족주의적 역사관으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생각이리라.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화낼 일도 아니다. 율곡의 논리에 녹아든 학문적 또는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지만 이런 역사관은 율곡이 말한 진유(眞儒)와 도학(道學)의 배경이 되고 있다. 그 도학은 후대 송나라에서 성리학이 태동하면서 성립된 학문 개념이기 때문이다. 성리학을 달리 성명의리지학(性命義理之學)이라고도 부르는데, 하늘의 명령으로서 부여된 인간의 본성과 그 본성의 내용인 도리를 밝히는 것이 곧 성리학이다. 여기서 의리(義理)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할 불변하는 하늘의 명령이자 인간의 도리이다. 이것은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리학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개념이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은 도학의 계보를 요임금-순임금-우임금-탕임금-문왕-무왕-주공-공자-맹자로 연결시킨다.

그러니 맹자 이후로부터 성리학 이전까지의 유학은 이런 의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전을 해석하거나 제도나 문물을 잇고, 그리고 삼강오륜을 중심으로 가족이나 사회생활의 윤리실천 방면에서 계승될 정도였다. 이 때문에 율곡이 우리나라 이전 유학자들 가운데 진유가 없다고 평가한 것처럼, 성리학을 태동시킨 송대의 유학자들도 이전의 중국 유학자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입장에서 보면 공자와 맹자 이후로부터 송나라 이전까지 진유는 없는 셈이 된다. 이렇게 중국에도 없었으니 조선의 역사에도 없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고려 충렬왕 때 안향(安珦)이 원나라로부터 주자성리학을 도입한 이후로 율곡까지 2세기 반이 지났지만, 당시에는 성리학의 정착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진유가 출현하기에는 아직 일렀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기자(箕子)는 유학의 전통에서는 고대의 현인이므로, 그의 가르침으로 우리나라의 오랑캐 풍습이 바뀌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이런 성리학적 역사관과 가치에서 볼 때 우리 역사의 비하가 아니라 대단한 자부심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어쩌면 성리학자들의 역사 인식에는 기자조선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조선이 당시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중국 다음으로 주변 오랑캐와 다르다는 근거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율곡은 진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른바 진유(眞儒)라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실천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나서는 전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그를 진유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습니다."

율곡의 이 정의는 조선유학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는 발언인데, 진유란 벼슬길에 나갔을 때는 도학으로 태평성대를 이루

고, 벼슬길에서 물러났을 때는 긴 세대에 가르침을 남기는 선비이다.

그런데 율곡의 이 기준에서 볼 때 비록 벼슬길에 크게 쓰이지는 못했지만 가르침으로 진유가 된 사람은 전 편의 말을 종합해 볼 때 맹자 이후로는 주돈이(周敦頤)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한다. 율곡의 기준이 너무 높은가?

오늘날 스스로 유학자나 선비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혹 스스로 선비라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을까? 여기서 관직에 나아가든 안 나가든 또는 제자를 기르는 교육에 종사하든 안 하든 그것은 본인의 직업 상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선비가 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 필자는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 배움에 힘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을 선비라 부르고 싶다. 여기서 참 선비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과 실천의 동기나 목적이 입신양명이나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의 덕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는 사회와 인류를 위해 실천하는 일이어야 한다. 그가 정치가든 언론인이든 학자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기업이이든 또 그 무엇이든 간에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리를 다해야 참 선비가 될 것이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이제 여기서 말한 치인(治人)은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자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어야 할 것이다.

한문 원전 음미하기

夫所謂眞儒者는 進則行道於一時하여 使斯民有熙
부 소 위 진 유 자 진 즉 행 도 어 일 시 사 사 민 유 희

皞之樂하고, 退則垂敎於萬世하여 使學者得大寐之
호 지 락 퇴 즉 수 교 어 만 세 사 학 자 득 대 매 지

醒하니, 進而無道可行하고 退而無敎可垂면 則雖謂
성 진 이 무 도 가 행 퇴 이 무 교 가 수 즉 수 위

之眞儒라도 吾不信也니라.
지 진 유 오 불 신 야

夫: 발어사/所謂: 이른바/眞儒: 참된 선비/者:~것, 사람/進: 나아가다/則: 조건을 나타내는 어조사/行: 행하다/道: 도리/於: ~에/一時: 한 시대, 같은 때/使: ~로 하여금/斯: 이/民: 백성/有: 가지다/熙: 빛나다/皞: 화락하다/樂: 즐거움/退: 물러나다/垂: 드리우다/敎: 가르침/萬世: 아주 오랜 세대. 만세/學者: 배우는 사람/得: 얻다/大: 크다/寐: 잠자다/醒: 잠이나 술에서 깨다/可: ~할 수 있다/雖: 비록 ~하더라도/謂: 이르다, 말하다/吾: 나/信: 믿다/也: 종결의 어조사

해석

이른바 진유(眞儒)라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하니,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실천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나서는 전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록 그를 진유라고 말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